

해방 정국, 송완순 아동문학 비평 속 이상과 좌절 -낙원, 실낙원의 현실과 호흡하기-

신동재(춘천교대)

1. 아동문학의 호인(虎人) 송완순

- 송완순, 대전 진잠 출생. 1907~1950.
- 필명 호인, 구봉산인, 구봉학인 등
- 필명 호인(虎人)은 그의 말처럼 “무자비”하며 “어떠한 비난 공격이 있어도 용감히 싸”우는 모습을 반영한 이름. 이 필명은 맹수처럼 날카롭고 예리한, 한 번 물면 놓을지 모르는 ‘집 요함’을 연상시킴.(신동재, 송완순 비평의 후쿠모토주의(福本主義) 비판·수용 양상 연구,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37호, 2025, 156쪽.)
- 1930~1931년 흥은성, 신고송 등과 동요 논쟁
- 1930년 초 <북본주의의 비격>이라는 글로 카프 지도부를 중상한 혐의로 카프에서 제명 (cf. 친후쿠모토주의 vs 반후쿠모토주의)

전체성(총체성)의 동화의 이상(후쿠모토, 루카치)

- 어떤 思想을 그 具體的 全體性에 있어서 認識把握하려 하면은 短篇만 가지고는 到底히 不된다. 단 한 가지의 思想도 가장 具象되게 描寫하기 어려운 것이다. 그럼으로 長篇作品을인제 힘써하는사람도 나와야 한다.(虎人(송완순), 「兒童藝術 時評」, 신소년제10권 제7호, 1932.8, 18쪽.)
- 후쿠모토 가즈오를 경유해 루카치의 전체성(Totalität) 개념 수용
- 송완순은 “어떤 사상을 구체적 전체성에 있어서 인식 파악하려면은 단편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”고 주장 식민지 조선에서 어린이가 사상의 총화를 파악,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편이 필요함.
- 그는 작품에서 어린이들이 ‘구체적 전체성’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.

2. 본론

1) 「조선역사」(1945.12.)

- “아직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고 새나라의 자리가 튼튼히 잡히려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을 해가야 하겠지만, 반듯이 일우어질 것을 믿습니다.”(송완순, 「조선역사」, 『별나라』 속간 제1호, 1945.12, 13쪽.)
- 해방 정국 새나라(통일 조선 정부)에 대한 열망
- 38선 분단이 극복되고 새 정부(전체 조선 정부)가 들어설 것에 대한 불안정 속의 희망.
- 현실: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토지조치 단행(-김윤식 “남북분단의 결정적 계기”로 본 사건), 미소공위 결렬, UN의 제안 38선 이남에서 실현.단독정부 설립

2) 「공위유감(共委有感)」(1947.5.8.)

- “만일 현재와 이 상태가 향후 일이년만 더 지속한다면 그리하여 남북조선이 딴나라의 형태를 강화한다면 조선민족의 파멸은 희랍민족보다도 더 참혹할 것”
- “이러한 두려운 사실을 욕망하는 자만이 공위의 성공을 불원(不願)할수있”으며 그런 이들은 “조선민족의 철천할 원수”
- “신탁”이란 “국제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영토적 식민지화와는 다르며 더구나 조선에 대한 그것은 사개국의 임시적인 공동원조 또는공동후견”(송완순, 「공위유감(共委有感)」(1947.5.8.), 『신조선』 제4호, 노동사, 1947, 41쪽.)
- 찬탁 입장=강대국의 통치 거쳐통일 정부 수립
- 반탁을 신탁통치를 거부하고 38선 이남의 “남조선단독정부수립운동”으로 판단

3. 본론(2)

1) 정부 수립 이후 자본주의 비판

- “자본주의는 그 본질적 필연성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를 “사람”으로 인정치 아니치 못한 것이다. 그것은 어린이를 장래의 이윤획득 경쟁에 있어서 우승자가 되도록 하려면 자유주의적 교육으로써 개인주의적 인격을 철저히화”
- “어린이의 지위에 심한 경제적 차등을 재래(齎來)해서 극소수의 어린이는 지상낙원의 천사로 화하고 반대로 극대다수의 어린이는 실낙원의 아귀로 화하여(중략) 점점 격리상극(隔離相劑)치 아니치 못하게”(송완순, 『아동문학의 천사주의 - 과거의 사적(史的) 일면에 관한 비망록』, 『아동문화』 제1집, 동지사 아동원, 1948.11., 26쪽.)
- 자본주의가 어린이에게 끼친 해악 비판
- 두 계층 어린이의 격리상극: 지상낙원의 천사 vs 실낙원의 아귀

2) 낙원과 실낙원의 어린이

- “낙원”이란 “전형적 독점 자본가의 근대적 마천궁이 아니라 지주적 토착자본가의 장원” 물적 토대 위에서 생긴 “천사”들은 “아직 완전히 소위 개화를 못”한 상태.
- “실낙원”(프롤레타리아의 공간)은 “생산방식이 다분히 원시적인 농토 위에 있”음. 거기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는 “토인적 처지를 해탈치 못”한 상태(송완순, 『아동문학의 천사주의 - 과거의 사적(史的) 일면에 관한 비망록』, 『아동문화』 제1집, 동지사 아동원, 1948.11., 26쪽.)
- 방정환은 “현실의 어린이의 참담추루(慘憺醜陋)한 생활실상에 대하여 느낀 바”와 “민족적이자 인도적인 의분”에 근거.(실낙원적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)
- 그러나 그것을 “극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지를 못하고, 소극적 무저항에 머물게 하였으며, 이것이 편진일보하여 자기가 비판시하는 부정적 현실에서 어린이를 격리시키어, 관념상으로나마 혹종의 행복감을 주려는 의욕”에 머물게 했고, **결국 천사주의를 불러옴.** (송완순, 『아동문학의 천사주의 - 과거의 사적(史的) 일면에 관한 비망록』, 『아동문화』 제1집, 동지사 아동원, 1948.11., 29쪽.)

4. 천사주의, 낙천주의 비판의식

- 송완순은 방정환의 천사주의를 “민족주의의 현실인식”을 “로맨트키한 센티멘탈리즘에 의거”한 것으로 해석.
- “천사주의는,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외관상으로는 어린이를 가장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실(實)은 가장 그릇치는 사상”
- 방정환의 “애제자” 윤석중의 낙천주의는 “너무 센티멘탈라하거나 환상적이지를 았았다. 될 수 있는 데까지 현실에 집착”, “낙천주의적”평가=>“윤씨가 방씨 류의 센티멘탈리즘을 청산한 것은, 어쨌던지 옳은 일”
- 그러나 “윤 씨의 낙천은 너무도 안이한 것”으로 “어린이가 생리적 본질에 있어서 낙천적이니까. 그것을 그대로 보았을 뿐”
- 낙천주의의 문제점은 어린이의 낙천성의 단순 반영이지, 현실 또는 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란 점. “낙천주의 속 어린이”는 “생활현실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시간적 인간”이 아니었고, “실제 사회의 역사적 관계에는 별로 제약을 받지 않는 천사”
- “**방 씨의 천사주의보다 윤 씨의 그것이 차라리 더 좋지 못했다**”
- 송완순이 그 평가의 준거로 들고 있는 것은 “민족적 사회현실에 대한 호흡” 여부
- 윤석중은 방정환의 “센티멘탈”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, 한편으로, 사회 현실과 교감한다는 점에서 퇴보.(‘일보 전진 이보 후퇴’)
- 윤석중은 “어린이의 생리적 미숙의 동률성(同律性)에만 치중하여, 민족적 사회현실을 통히 무시하고, 덮어놓고 어린이는 즐거운 인생이며, 또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” 되게 했음. “행복감을 함부로 넣어 주어, 그들의 정신을 고혹(蠱惑)”시킴.
- 1950년 월북, 당해 사망.
- 송완순이 남긴 비판의식은 면면히 아동문단 내 관류. 이후 1970년대 방정환, 윤석중에 대한 비판 의식과도 유사한 측면.
- Cf 이오덕, <<시정신과 유희정신>>(1977) =>송완순과 비슷한 비판 의식
이재철, <<한국아동문학작가론>>(1983) =>송완순의 장단점 모두 언급

‘현실어린문학’, ‘본격신동심문학’ 양립구도